

난창 방언의 입성(入聲) 운미 변화에 관한 소고

박 규 정*

<目次>

I. 서론	2. 입성 운미의 실현 양상
II. 난창 방언 입성 운미의 변화에 관한 고찰	변화에 대한 분석
1. 난창 방언 입성 운미의 실현 양상	III. 결론

I. 서론

현대 중국어의 ‘입성(入聲)’은 중세 중국어(中古漢語)의 입성에 연원을 두고 있는 ‘성조 범주(調類)’를 가리키며, 다른 성조범주와는 달리 ‘짧은 음장’ 및 ‘파열음 운미(韻尾)’¹⁾를 가진다.

楊信川(1997)²⁾ 등의 연구에서는 ‘웨 방언(粵語)’, ‘커자 방언(客家話)’ 등과 같은 남방 방언의 ‘입성(入聲)’이 중세 중국어의 ‘입성(入聲)’이 가지고 있던 특성을 상당히 잘 보존하고 있으나 북쪽으로 올라 갈수록 ‘舒聲化³⁾’가 나타남으로 인해 북방 지역의 많은 방언에서는 ‘입성(入聲)’이 소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강사

1) ‘p 운미’, ‘t 운미’, ‘k 운미’를 가리키며, 이하에서는 ‘-p’, ‘-t’, ‘-k’로 표시한다. 이후에 기술할 ‘?’ 운미 역시 ‘-?’로 표시한다.

2) 楊信川, 〈試論入聲的性質及其變化〉, 《廣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1期, 1997, 77쪽.

3) 음장(音長)이 길어지고 자음 운미가 소실되면서 ‘入聲’이 ‘舒聲’으로 변화하는

실되고 중국에는 다른 성조범주와의 구분이 없어졌다 하였다. 朱曉農 等 (2008)⁴⁾에서는 여러 방언의 입성에 대해 실험음성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입성은 ‘開化路(입성 韻尾의 소실)’, ‘長化路(입성의 음장(音長)이 길어짐)’, ‘變聲路(입성의 ‘발성 유형(發聲態)⁵⁾이 변화)’의 세 가지 경로로 변화함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宮齊·王茂林(2011) 및 박규정(2017)⁶⁾ 등에서는 여러 방언의 입성에 대해 최적성이론(Optimality Theory)을 통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난창 방언(南昌話)은 장시성 난창시(江西省南昌市) 및 주변의 현에서 사용되는 방언으로, 중국 방언학계에서는 贛語 중에서도 昌都片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⁷⁾. 난창 방언은 ‘남방방언 중에서 입성운미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점과 ‘공시적으로 입성운미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입성’의 변화를 연구함에 있어 중요한 방언이라 할 수 있다.

난창 방언의 입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뤄졌으며, 크게 ‘전통적

현상을 가리킨다.

- 4) 朱曉農 等, 〈入聲演化三途〉, 《中國語文》 第4期, 2008, 325쪽.
- 5) 이는 사람이 음을 낼 시에 성문(聲門)이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나타는데, 朱曉農(2009)에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朱曉農(2008)는 ‘餘幹話’의 ‘陰入’에 ‘嘎裂聲(짜내는 소리)’이 포함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朱曉農 等, 같은 논문, 336쪽; 朱曉農, 〈發聲態的語言學功能〉, 《語言研究》, 第29卷 第76期, 2009.07, 1/12쪽.
- 6) 宮齊、王茂林, 〈漢語方言塞音韻尾保留情況的優選論分析〉, 《暨南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6期, 2011; 박규정, 〈방언간 ‘입성운미(入聲韻尾)’의 차이에 관한 소고〉, 《중국어학》 제61집, 2017.
- 7) 다만 난창 방언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존재한다. 何琳珊(2006)에서는 난창 방언의 사용지역을 난창시(南昌市) 및 주변의 12개 현(縣)을 포함한다고 보았으며, 盧繼芳(2016)에서는 난창시, 난창현(南昌縣), 안이현(安義縣), 신전현(新建縣) 전체, 융수현(永修縣) 및 더안현(德安縣)의 일부분을 포함한다고 보았고, 徐倩文(2018)에서는 난창시와 난창현 만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何琳珊, 〈南昌方言陽聲韻尾與入聲韻尾演變研究〉, 天津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1-2쪽; 盧繼芳, 〈贛語昌都片語音研究〉, 湖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6, 254쪽; 儲倩文, 〈南昌方言音系實驗研究〉, 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1쪽.

인 방언학적 관점의 연구, ‘실험음성학적 연구’, ‘최적성이론 등을 통한 음운론적 연구’로 나눌 수 있다. 何琳珊(2006), 盧繼芳(2016) 등에서는 전통적인 방언학의 관점에서 난창 방언의 입성을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난창 방언 입성에 대한 기술, 입성의 연원 및 변화 과정 분석, 기타 방언과의 비교가 주를 이룬다. 儲倩文(2018)에서는 실험음성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입성 韻尾’를 포함하는 韻母의 formant 및 음장을 측정하는 것을 통해 난창 방언 입성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宮齊·王茂林(2011)에서는 최적성이론 중 ‘비교 유표성(Comparative Markedness)’을 이용하여 난창 방언의 입성이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였다⁸⁾. 그렇지만, 난창 방언에서의 입성 운미가 어떠한 내부적 원인으로 인해 변화하는가에 대해서는 분석이 부족하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난창 방언 입성 운미의 변화를 최적성이론을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난창 방언 입성 운미의 변화에 관한 고찰

본 장에서는 난창 방언에서 입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하여 논한다.

1. 난창 방언 입성 운미의 실현 양상

본 절에서는 난창 방언 입성의 실현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한다.

8) 宮齊·王茂林(2011)에서는 ‘-p’가 소실되는 것만을 설명할 뿐, ‘-k’ 중의 일부가 ‘-t’로 합류되는 것과 합류되지 못한 ‘-k’가 ‘-ʔ’로 변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宮齊·王茂林, 앞의 논문, 108-110쪽.

〈표 1〉 난창 방언에서의 입성⁹⁾

韻尾		袁家驊 (1960)	楊時逢 (1969)	熊正輝 (1995)	侯精一 (1998)	張燕娣 (2007)	劉俐李等 (2007)
塞 韻 母	-t 尾	it et iet uet uat ot uot yot at ut yt	it et ət iet uet uat oet uət yet at yt	it it et iet uet at uat ot uot yot ut yt		it it et iet uet at uat ot uot yot ut yt	it it et iet uet at uat ot uot yot ut yt
	-l 尾		uəl				
	-k 尾	uk iuk ak iak uak ok iok uok					
	-ʔ 尾		uʔ yuʔ ɛʔ aʔ iaʔ oʔ ioʔ uoʔ	uʔ iuʔ aʔ iaʔ ɔʔ ioʔ uɔʔ uaʔ	iʔ iʔ uiʔ ɛʔ ieʔ ueʔ aʔ uaʔ ɔʔ uəʔ yeʔ yʔ uʔ iuʔ aʔ Iaʔ ɔʔ ioʔ uaʔ	uʔ iuʔ aʔ iaʔ ɔʔ ioʔ uaʔ	uʔ iuʔ aʔ iaʔ ɔʔ ioʔ uaʔ

〈표 1〉을 보면, 난창 방언에서 -p는 이미 실현되지 않고 -k는 음가를 유지하거나 -ʔ로 변화하였으며 -t만 온전히 남아 있다.

袁家驊(1960/2001), 楊時逢(1969), 熊正輝(1995), 陳昌儀(2005) 등에 따르면, -p는 모두 -t로 합류하였다. 그리고 曾攝 開口 一/三等, 曾攝 合口 一等, 梗攝 開口 二/四等に 해당하는 일부 글자(韻腹이 i, i, ɛ/e)에서는 -k가 -t로 합류하였다¹⁰⁾. 또한 楊時逢(1969) 이후의 연구에 따르면, -t로 변화하지 않은 -k가 -ʔ로 변화하였다¹¹⁾.

9) 본 표는 儲倩文(2018)에서 인용을 하였다. 이는 원래 韻母 전체를 나타내는 표이나, 본 논문에서는 입성 운미만을 고찰하므로 ‘塞韻母’ 부분만 발췌하였다. 儲倩文(2018)에서는 자료의 출처를 ‘概要’, ‘音系’ 등으로 논저의 제목을 줄여서 표기해 놓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저자(년도)’로 표기한다.
儲倩文, 앞의 논문, pp.4-6.

10) 袁家驊, 《漢語方言概要》, 語文出版社, 1960(第一版)/2001(第二版), 135~136쪽; 楊時逢, 〈南昌音系〉,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第39本上冊,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69, 129/149/170쪽; 熊正輝, 《南昌方言詞典》, 江蘇教育出版社, 1995, 11~14쪽(引論); 陳昌儀, 《江西省方言志》, 方志出版社, 2005, 75쪽.

그리고 다소 예외적인 현상도 존재하는데, 楊時逢(1969)에 의하면 臻攝 合口 一等의 일부 글자에서 -t가 -l로 변화하였으며, 侯精一(1998)에 의하면 난창 방언에서는 구강 과열음 운미가 모두 성문 과열음으로 변화되었다. 다만, 후속 연구에서 같은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탓에,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2. 입성 운미의 실현 양상 변화에 대한 분석

(1) 난창 방언(구)

‘난창 방언(구)’를 입성 운미가 변화하지 않은 방언과 비교해 보면¹²⁾, 袁家驊(1960/2001)에서 기술된 ‘난창 방언(구)’의 입성 운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가. -p는 모두 -t로 합류하였다.

나. 운복 i, i, e/ε 뒤에 오는 -k는 -t로 합류하였으며, 나머지는 원래의 음가를 유지한다¹³⁾.

- 11) 본 논문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袁家驊(1960/2001)에 기술된 것을 ‘난창 방언(구)’로, 楊時逢(1969) 이후에 기술된 것을 ‘난창 방언(신)’으로 칭한다. 여기에서 ‘같은 방언에서 10년 사이에 이렇게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냐’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도 분명히 밝히기가 힘든데, 왜냐하면 袁家驊(1960/2001)에서는 난창 방언의 음운 체계를 정리하는 근거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 않았고, 楊時逢(1969)에서는 ‘南昌城内’ 출신인 ‘王萍女士’의 발음을 정리하여 자료로 삼았다는 기술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성이 ‘위세형’으로의 언어변화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익섭(2000))에서 보면, 楊時逢이 난창 방언을 조사하던 시점에는 ‘-t에서 -?로의 변화’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楊時逢, 앞의 논문, 125쪽; 이익섭, 《사회언어학》, 민음사, 2000, 166쪽.
- 12) 대표적인 예로 커자 방언(客家話)에 속하는 메이센 방언(梅縣話)을 들 수 있다. 박규정, 앞의 논문, 282-283쪽.
- 13) i, i, e, ε는 모두 [-back] 자질을 가지며, i, i는 [+high] 자질을, e는 [+high] [+mid] 자질을, ε는 [+mid] 자질을 함께 지닌다. Lass, Roger. *Pho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94.

다. 운미는 ‘구강 파열음’을 유지한다. 즉, ‘성문 파열음’, ‘비음’ 혹은 ‘유음’으로 변화하지 않았으며, 자음 운미가 소실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입성의 운미와 관련한 다음의 제약을 세울 수 있다.

- a. Ident(PlaceF): 조음 위치와 관련한 자질이 입력형과 출력형에서 같아야 한다.
- b. * $-p]_o$: 음절 말에 자음 $-p$ 가 오는 것을 제한한다.
- c. * $-t]_o$: 음절 말에 자음 $-t$ 가 오는 것을 제한한다.
- d. * $-k]_o$: 음절 말에 자음 $-k$ 가 오는 것을 제한한다¹⁴⁾.
- e. * $[-oral]_o$: 음절 말에서 자음이 $[-oral]$ 자질을 가지는 것을 제한한다.
- f. Ident(MannerF): 조음 방법과 관련한 자질이 입력형과 출력형에서 같아야 한다.
- g. * $[+obs]_o$: 음절 말에서 자음이 $[+obs]$ 자질을 가지는 것을 제한한다.
- h. MAX(segment): 입력형의 분절음은 출력형에 대응해야 한다¹⁵⁾.
- i. No-Coda: 음절 말에 자음이 오는 것을 제한한다.

난창 방언(구)에서는 $-p$ 와 $-?$ 가 실현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t$ 및 $-k$ 는 음가를 유지하므로¹⁶⁾, $-p$ 와 $-?$ 의 실현을 제약하는 유표성 제약은 조음 위치를 유지시키는 충실성 제약보다 상위에 있으며, $-t$ 및 $-k$ 를 제한하는 제

14) * $-p]_o$ 는 자음이 음절 말에서 동시에 $[+obs]$, $[+oral]$, $[+ant]$, $[-cor]$ 을 가지지 못함을, $-t]_o$ 는 자음이 음절말에서 동시에 $[+obs]$, $[+oral]$, $[+ant]$, $[+cor]$ 을 가지지 못함을, $-k]_o$ 는 자음이 음절말에서 동시에 $[+obs]$, $[+oral]$, $[-ant]$, $[-cor]$ 을 가지지 못함을 나타낸다.

(변별 자질은 Lass(1984)를 참조하였는데, 이는 난창 방언에서 출현하는 4가지의 파열음 운미 p , k , t , $?$ 간의 차이를 $[\pm obs]$, $[\pm oral]$, $[\pm ant]$, $[\pm cor]$ 의 자질 4개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Lass, Roger. 같은 책, pp.84-95.

15) 이하에서는 ‘MAX(Seg)’로 표시하며, MAX 제약은 입력형에 존재하는 어떤 요소의 삭제(Deletion)를 제한하게 된다.

16) 참고로 모든 구강 파열음 운미가 유지되는 메이센 방언에서는 모든 충실성 제약이 유표성 제약을 지배한다.

박규정, 앞의 논문, pp.284-288.

약은 충실성 제약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j. *[-p]_{\sigma}, *[-oral]_{\sigma} \gg \text{Ident(PlaceF)} \gg *[-t]_{\sigma}, *[-k]_{\sigma}$$

그렇지만, -p는 -k로 합류하지 않고 -t로 합류하게 되는데, 이는 -t의 실현을 제한하는 제약보다 -k를 제한하는 제약의 등급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에 j의 공식을 다시 쓸 수 있으며, 아래의 표로 나타낼 수 있다.

$$j'. *[-p]_{\sigma}, *[-oral]_{\sigma} \gg \text{Ident(PlaceF)} \gg *[-k]_{\sigma} \gg *[-t]_{\sigma}$$

〈표 2〉 난창 방언(구)의 입성 운미(1)

-p	*[-p] _σ	*[-oral] _σ	Ident (PlaceF)	*[-k] _σ	*[-t] _σ
-p	*!				
☞ -t			*		*
-k			*	*!	
-?		*!	**		

〈표 2〉을 보면, 첫 번째 후보형(-p)는 제약 ‘*[-p]_σ’를 위반하여, 세 번째 후보형(-k)는 제약 ‘*[-k]_σ’을 위반하여, 네 번째 후보형(-?)는 제약 ‘*[-oral]_σ’을 위반하여 탈락한다. 그리하여 두 번째 후보형(-t)가 출력형으로 선택된다¹⁷⁾. 이는 ‘-p’가 그 음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t’로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17) 표에서 ‘*’는 그 후보형(candidate)이 어떠한 제약을 위반하였음(violation of constraint)을 의미하고, ‘!’는 그 후보형이 출력형으로 선택되지 못하는, 즉 탈락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명적 위반(critical violation)을 나타낸다. 그리고 ☞는 최적형으로 선택되는 가장 조화로운 후보형(the most harmonious candidate)을 가리킨다.

그리고 조음 방법은 변화하지 않고(비음이나 유음 등으로 변화하지 않음) 분절음 유지도 유지되므로, 관련한 충실성 제약이 유표성 제약보다 상위에 놓인다. 이를 공식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j” Ident(MannerF), MAX(Seg) ≫ *[+obs]]_σ, No-Coda

〈표 3〉 난창 방언(구)의 입성 운미(2)¹⁸⁾

-p	Ident (MannerF)	MAX(Seg)	*[+obs]] _σ	No-Coda
☞ -t			*	*
-m	*!			*
-∅		*!		

〈표 3〉을 보면, 두 번째 후보형(-m)는 제약 ‘*Ident(MannerF)’를 위반하여, 세 번째 후보형(-∅)는 제약 ‘MAX(Seg)’을 위반하여 탈락한다¹⁹⁾. 그리하여 첫 번째 후보형(-t)가 출력형으로 선택된다. 즉 〈표3〉은 파열음이 비음 등의 다른 조음 방법을 가진 음으로 변하거나 탈락하지 않고 원래의 조음 방법을 유지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j’와 j”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k. *-p]_σ, *[-oral]]_σ, Ident(MannerF), MAX(Seg) ≫ Ident(PlaceF) ≫ *-k]_σ ≫ *-t]_σ, *[+obs]]_σ, No-Coda

18) -p가 -t로 함류하는 과정은 공식 j’ 및 〈표 2〉에서 보였으므로, 〈표 3〉에서는 공식 j”와 관련한 비음 및 개음절만 후보로 표시하였다.

19) 이와 같이 제약의 등급이 낮아 출력형으로 선택되지 않는 후보형을 ‘차최적형(sub-optimality)’이라 부른다.

‘차최적형(sub-optimality)’에 관해서는 Kager(1999)를 참조하기 바란다.

Kager, Rene. *Optimality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41-42.

〈표 4〉 난창 방언(구)의 입성 운미(3)

-p	*[-p]°	*[-Oral]°	Ident(MannerF)	MAX(Seg)	Ident(PlaceF)	*[-k]°	*[-t]°	*[+obs]°	No-Coda
-p	*!							*	*
☞ -t					*		*	*	*
-k					*	*!		*	*
-ʔ		*!			**			*	*
-m			*!						*
-∅				*!					

〈표 4〉에서는 두 번째 후보형(-t)을 제외한 모든 후보형이 탈락하였다. 이는 ‘-p’가 조음 방법이 변화하거나 탈락하지 않고 조음 위치가 다른 과일음 중에서도 ‘-t’로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모음 i, i, e/ε 뒤에서는 -k가 실현되지 않고 -t로 변화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약을 설정할 수 있다.

- l. *[+high][-back]&k: [+high][-back]의 자질을 가진 모음 뒤에서 자음 k의 실현을 제한한다²⁰⁾.
- m. *[+mid][-back]&k: [+mid][-back]의 자질을 가진 모음 뒤에서 자음 k의 실현을 제한한다²¹⁾

이 제약은 -p와 -ʔ를 제한하는 유표성 제약과 같이 조음 위치를 유지시키는 충실성 제약을 지배하며, 이를 공식 k와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 이는 모음 i, i, 뒤에 오는 k를 제한한다.

21) 이는 모음 e/ε 뒤에 오는 k를 제한한다.

- n. *[-p]_o, *[-oral]_o, *[+high][-back]&k, *[+mid][-back]&k, Ident (MannerF), MAX(Seg) >> Ident(PlaceF) >> *[-k]_o >> *[-t]_o, *[+obs]_o, No-Coda

〈표 5〉 난창 방언(구)의 입성 운미(4)²²⁾

-εk	*[-p] _o	*[-oral] _o	*[+mid][-back]&k	Ident(MannerF)	MAX(Seg)	Ident(PlaceF)	*[-k] _o	*[-t] _o	*[+obs] _o	No-Coda
-εp	*!					*			*	*
☞ -εt						**		*	*	*
-εk			*!				*		*	*
-ε?		!*				*			*	*
-εŋ				*!						*
-ε					*!					

〈표 5〉에서는 두 번째 후보형(-εt)을 제외한 모든 후보형이 최상위 제약을 위반하여 탈락하였다. 이는 ‘-k’가 특정한 모음(i, i, e/ε) 뒤에서 조음 방법이 변화하거나 탈락하지 않고 조음 위치가 다른 파열음 중에서도 ‘-t’로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2) 난창 방언(신)

역시 입성 운미가 변화하지 않은 방언과 비교하면, 楊時逢(1969) 등에 기술된 ‘난창 방언(신)’의 입성 운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22) 이 표에서는 ‘-εk’를 예로 들어 -k가 -t로 합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ik, -ik 역시 *[+high][-back]&k에 의하여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마. -p는 모두 -t로 합류하였다.

바. 운복 i, i, e/ε 뒤에 오는 -k는 -t로 합류하였다.

사. -t는 '구강 파열음'을 유지하나, 남아 있던 -k는 -ʔ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비음' 혹은 '유음'으로는 변화하지 않았으며, 자음 운미가 소실되기도 않았다.

즉, 난창 방언(신)에서는 -t로 변화한 -k를 제외한 나머지 -k가 -ʔ로 변화하였다. 이는 모음 u, o/ɔ, a, a²³⁾ 뒤의 -k가 -ʔ로 변한 것인데²⁴⁾,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제약을 설정할 수 있다.

o. *[-mid][-back]&k: [-mid][-back]의 자질을 가진 모음 뒤에서 자음 k의 실현을 제한한다.

p. *[+back]&k: [+back]의 자질을 가진 모음 뒤에서 자음 k의 실현을 제한한다.

이 제약으로 인하여 -k가 실현되지 아니하므로, -p를 제한하는 유표성 제약과 마찬가지로 조음 위치를 유지시키는 충실성 제약보다는 등급에 있어 상위에 있어야 한다. 이를 k의 조합하면 다음과 같다.

n'. *_o-p, *[-oral]_o, *[-mid][-back]&k, *[+back]&k, MAX(Seg), Ident(MannerF) ≫ Ident(PlaceF) ≫ *_o-k ≫ *_o-t, *[+obs]_o, No-Coda

23) 모음 a는 [-mid]과 [-back]의 자질을 가지며, 모음 u, o, ɔ, a는 [+back]의 자질을 공유한다.



Lass, Roger. 앞의 책, p.94.

24) 楊時逢(1969)에는 예외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다수 기술되어 있는데, '-εʔ'도 이에 속하며 '百peʔ/paʔ'가 예시 중 하나이다. 이는 난창 방언의 '文白異讀' 현상과 관계된 것으로 사료되나, 熊正輝(1985)에서는 '百'와 같은 '梗攝開口二等'의 '文讀'와 '白讀'를 각각 'et'과 'aʔ'으로 기술하고 있다.

楊時逢, 앞의 논문, 129/150/172쪽; 熊正輝, 〈南昌方音的文白讀〉, 《方言》, 第3期,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1985, 210쪽.


그런데, n'과 같은 제약 등급 하에서는 아래의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나머지 -k가 -ʔ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t로 합류하게 된다²⁵⁾.

<표 6> 난창 방언(신)의 입성 운미(1)²⁶⁾

-uk	*[-p] _o	*[-oral] _o	*[+back]&k	Ident(MannerF)	MAX(Seg)	Ident(PlaceF)	*[-k] _o	*[-l] _o	*[+obs] _o	No-Coda
-up	*!					*			*	*
 -ut						**		*	*	*
-uk			*!				*		*	*
 -uʔ		!*				*			*	*
-uɰ				*!						*
-u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난창 방언(신)에서 -ʔ로 변하는 -k가 공식 n의 제약 등급관계에 의해 i, i, e/ε 뒤의 -k가 제외된 나머지가 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t로 변하지 않고 남겨진 -k가 -ʔ로 변하는 단계를 하나 더 설정하여 변화과정을 설명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²⁷⁾.

25) 제약 *[-oral]_o의 등급을 하향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ek → -et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26) 는 해당 제약 등급관계에 의해 잘못 선택되어지는 후보형을 의미한다.

27) 이는 Rubach(2000a, b)가 제시한 ‘도출형 최적형 이론(Derivational Optimality theory, DOT)’을 응용한 것이다.

‘도출형 최적형 이론’에서는 기타 최적성이론에서 채택하는 ‘병렬적(parallel) 분석’과 배치되는 ‘순차적(serial) 도출개념을 최적성이론에 도입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안상철(2003)을 참고하기 바란다.

안상철, 《최적성 이론의 언어분석》, 한국문화사, 2003, 213-215쪽.

난창 방언(신)에서는 -t로 변하지 않은 나머지 -k가 모두 -ʔ로 변하는데, 이는 -k를 제한하는 제약과 -ʔ를 제한하는 제약의 등급관계가 역전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k'. *[-p]_{\sigma}, *[-k]_{\sigma}, \text{Ident(MannerF)}, \text{MAX(Seg)} \gg \text{Ident(PlaceF)} \gg *[-oral]_{\sigma} \gg *[-t]_{\sigma}, *[+obs]_{\sigma}, \text{No-Coda}$$

k'는 앞에서 나눈 단계에서 2단계에 해당하므로, 1단계에 해당하는 제약 등급관계와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q. (1\text{단계}) *[-p]_{\sigma}, *[-oral]_{\sigma}, *[+mid][-back]\&k, \text{Ident(MannerF)}, \text{MAX(Seg)} \gg \text{Ident(PlaceF)} \gg *[-k]_{\sigma} \gg *[-t]_{\sigma}, *[+obs]_{\sigma}, \text{No-Coda}$$

$$(2\text{단계}) *[-p]_{\sigma}, *[-k]_{\sigma}, \text{Ident(MannerF)}, \text{MAX(Seg)} \gg \text{Ident(PlaceF)} \gg *[-oral]_{\sigma} \gg *[-t]_{\sigma}, *[+obs]_{\sigma}, \text{No-Coda}$$

〈표 7〉 난창 방언(신)의 입성 운미(2)

(1단계)

-uk	*[-p] _σ	*[-oral] _σ	*[+mid][-back]&k	Ident(MannerF)	MAX(Seg)	Ident(PlaceF)	*[-k] _σ	*[-t] _σ	*[+obs] _σ	No-Coda
-up	*!					*			*	*
-ut						**!		*	*	*
☞ -uk							*		*	*
-uʔ		!*				*			*	*
-uɰ				*!						*
-ε					*!					

(2단계)²⁸⁾

-uk	*-p]°	*-k]°	Ident(MannerF)	MAX(Seg)	Ident(PlaceF)	*[-ora]]°	*-l]°	*[+obs]]°	No-Coda
-up	*!				*			*	*
-ut					**!		*	*	*
-uk		*!				*		*	*
☞ -u?					*			*	*
-um			*!						*
-∅				*!					

〈표 7〉에서 1단계에서는 입력형과 같은 후보형 ‘-uk’가 그대로 출력형으로 선택되어 음가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단계에서는 변화된 제약관계에 의하여 탈락하고 후보형 ‘-u?’이 출력형으로 선택되었다. 이는 모음(u, o/ɔ, a, ʌ) 뒤의 ‘-k’가 모음(i, i, e/ɛ) 뒤의 ‘-k’와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III. 결론

난창 방언은 중국어에서 입성 운미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방언이며, 현재에도 입성 운미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최적성이론에서는 제약의 사이의 ‘등급 관계’를 이용하여 언어 내부의 변화를 해석하는데, 난창 방언의 입성 운미가 변화하는 것 역시 방언 내부에서 ‘제약 사이의 등급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28) 표에서 음영을 넣은 제약은 2단계에서 등급관계가 변화한 것임을 나타낸다.

첫째, 난창 방언에서 -p가 일률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모음 i, i, e/ε 뒤의 -k가 -t로 합류한 것은, 조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p를 제한하는 유표성 제약(context free markedness constraint, *-p]_o)와 조건에 따라 -k를 제한하는 유표성 제약(context sensitive markedness constraint, *-k]_o)이 입성 운미의 위치 자질을 유지시키는 충실성 제약(Ident(PlaceF))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다만, ?를 제한하는 *[-oral]]_o 역시 Ident(PlaceF)보다 상위에 있으므로, 실현되지 않는 -p와 합류한 일부의 -k는 -?로 변하지 않는다.

둘째, 이후 난창 방언에서 나머지 -k, 즉 모음 u, o/ɔ, a, a 뒤의 -k가 -?로 변화한 것은 *[-oral]]_o과 *-k]_o의 제약 등급관계가 역전되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절음에 관한 제약을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자질의 층위에서 제약의 위반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이는 각 분절음(난창 방언의 입성韻母)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자질([±obs], [±oral], [±ant], [±cor])을 통하여 제약 위반 여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최적성이론의 일반적인 ‘병렬적 분석(parallel analysis)’이 아닌 ‘도출형 최적형 이론(Derivational Optimality theory, DOT)’의 개념을 활용하여, -k가 조건에 따라 분리되어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楊時逢(1969)에 서술된 일부 예외적인 현상(-l로의 변화, -ε?와 -et의 공존)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박규정, <방언간 ‘입성운미(入聲韻尾)’의 차이에 관한 소고>, 《중국학》, 제61집, 대한중국학회, 2017.
- 안상철, 《최적성 이론의 언어분석》, 한국문화사, 2003.
- 이익섭, 《사회언어학》, 민음사, 2000.
- 陳昌儀, 《江西省方言志》, 方志出版社, 2005.

- 儲倩文,〈南昌方言音系實驗研究〉,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2018.
- 宮齊、王茂林,〈漢語方言塞音韻尾保留情況的優選論分析〉,《暨南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6期,2011.
- 何琳珊,〈南昌方言陽聲韻尾與入聲韻尾演變研究〉,天津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2006.
- 盧繼芳,〈贛語昌都片語音研究〉,湖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2016.
- 熊正輝,〈南昌方眼的文白讀〉,《方言》,第3期,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1985.
- 熊正輝,《南昌方言詞典》,江蘇教育出版社,1995.
- 楊時逢,〈南昌音系〉,《中央研究院曆史語言研究所集刊》,第39本上冊,中央研究院曆史語言研究所,1969.
- 楊信川,〈試論入聲的性質及其變化〉,《廣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1期,1997.
- 袁家驊,《漢語方言概要》,語文出版社,1960(第一版)/2001(第二版).
- 朱曉農等,〈入聲演化三途〉,《中國語文》,第4期,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2008.
- 朱曉農,〈發聲態的語言學功能〉,《語言研究》,第29卷 第76期,華中科期大學中國語言文字研究所,2009.
- Kager, Rene. *Optimality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Lass, Roger. *Pho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Abstract>

In Modern Chinese, 'Checked tone(入聲)' usually refers to the 'tone Category(調類)' derived from the 'Checked tone' in Middle Chinese.

'Nanchang Dialect' means the dialects which are used at Nanchang-

city(南昌市) and surrounding counties in Jiangxi-province(江西省). The terminal sounds(韻尾) in Checked-tone has started disappearing in this dialect, and the change of the terminal sounds carries on, for the hierarchies among the related constrains has changed.

First, because markedness constraints(*-p]_σ & *[+mid][-back]&k) prohibiting all of the ‘-p’ and a part of ‘-k’ dominate faithfulness constraint(Ident(PlaceF)) that preserves place features in obstruent terminal sounds, all of the ‘-p’ and ‘-k’ behind the essential vowel ‘ε(e)’ has changed into ‘-t’. But ‘-p’ and ‘-k’ can’t change into ‘-ʔ’, for the constraint ‘*[-oral]]]_σ’ has dominant ranking over the constraint ‘Ident (PlaceF)’.

Second, ‘-k’ behind essential vowel ‘u, o, ɔ, a, ɑ’ has changed into ‘-ʔ’, since the hierarchical ranking has been reversed between *-p]_σ and ‘*[-oral]]]_σ’.

Key Words : 입성(Checked-tone), 난창 방언(Nanchang Dialect), 운미(the terminal sound), 언어 변화(language change), 도출형 최적형 이론(Derivational Optimality theory, DOT)

